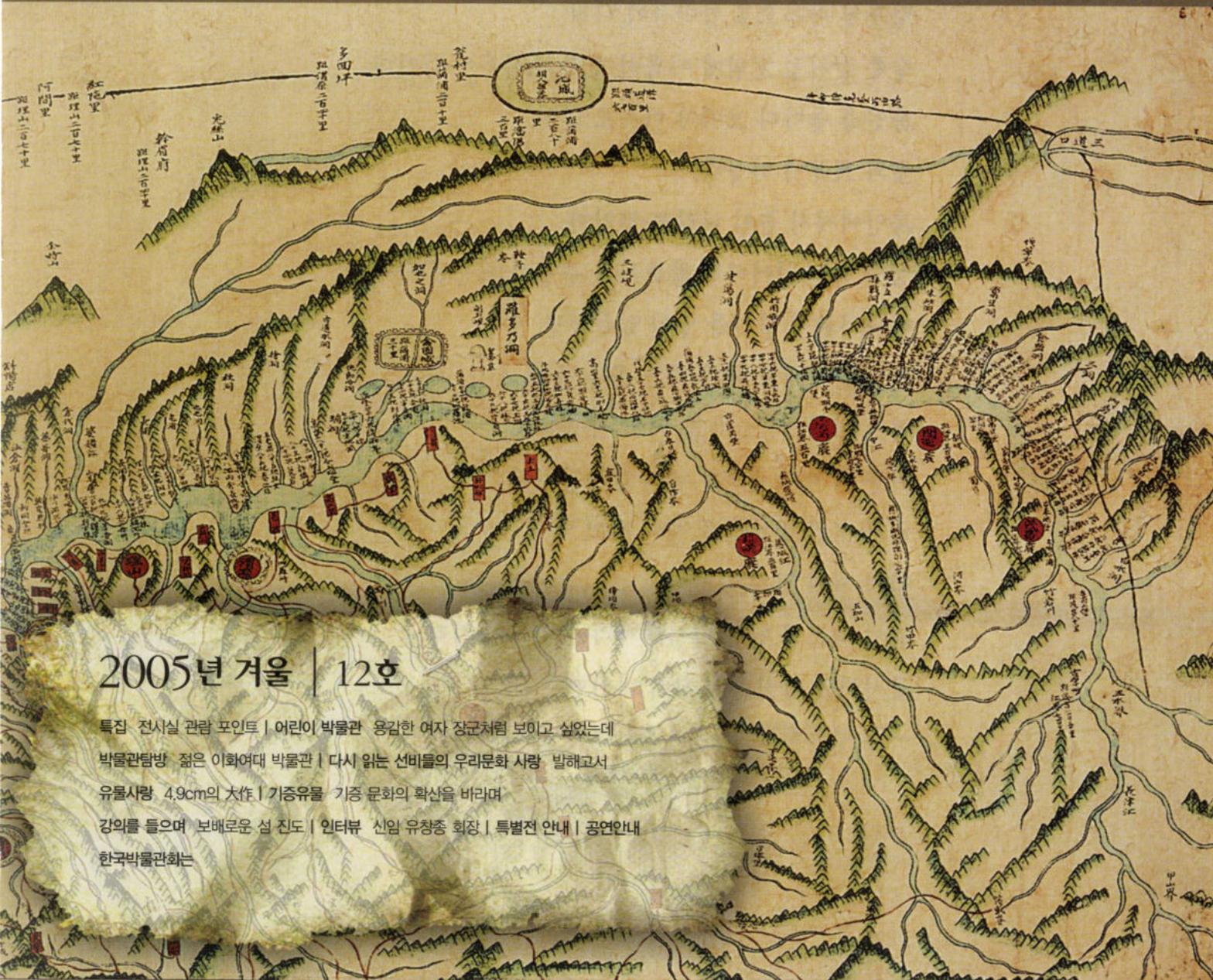


#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5년 겨울 | 12호

특집 전시실 관람 포인트 | 어린이 박물관 용감한 여자 장군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박물관탐방 젊은 이화여대 박물관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발해고서

유물사랑 4.9cm의 大作 | 기증유물 기증 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강의를 들으며 보배로운 섬 진도 | 인터뷰 신임 유창중 회장 | 특별전 안내 | 공연안내

한국박물관회는

## 눈오는 地圖

윤 동 주 (1917~1945)

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窓밖에 아득히 깔린 地圖우에 덮인다.  
房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壁과 天井이 하얗다.  
房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歷史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前에 일러들 말이 있든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쫓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꼬 내려  
덮여 따라 갈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一年 열두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이번호 특집은 전시실의 구체적인 관람 포인트이다.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I·II, 아시아관 등 각 관의 전시기획자를 만나, 기획 의도와 배경을 듣고 분석했다. 단순한 명품 위주의 관람에서 놓치기 쉬운 전시실의 전체적인 흐름, 중요유물에 대한 설명과 배경을 실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증관은 지면 관계상 다음으로 미룬다. (편집자 주)

## 먼 과거로의 여행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가 환하게 빛을 발하며 고고관 입구에서 우리를 맞는다. 세계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느끼며 조선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와 만나는 연표를 본다.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눈을 돌리면 넉넉한 공간에 자신의 보금자리로 안주한 빗살무늬토기, 요령식 동검, 산수무늬벽돌, 누금굵은고리귀걸이가 시대를 대표하며 기다리고 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 신라, 발해까지 먼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선사시대는 그 생활상을 이해하는데서 시작한다. 구석기시절은 한반도 인류의 출현과 도구의 사용에 대해 알려준다. 석기를 만드는 방법, 발달 과정도 유물과 패널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된다. 돌을 서로 부딪쳐 떼어낸 편석기로 도구의 편리함을 처음 알고, 주먹도끼를 만들기까지 백만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주먹으로 쥐고 돌의 끝을 떼어낸 주먹도끼를 사용하며 신나했을 구석기인들을 상상하자 슬그머니 웃음이 배어나온다.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나뭇잎형 찌르개는 예술적 표현의 시작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유적 출토지역을 표시하여 교류와 전파 과정도 비교한다. 신석기시대로 들어가자 수렵, 채집의 생활을 벗어나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생활의 발전상을 그림과

영상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한다. 토기의 출현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진흙 띠를 붙여 만든 덧무늬토기부터 현대적 감각이 엿보이는 빗살무늬토기까지 지역별로 전시되어 있다. 깔끔한 유리 패널 속의 설명이 관람의 묘미를 더해준다.



돌을 깨는 것에서 출발하여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드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하다. 처음 공개되는 동삼동 출토의 커다란 덧무늬 토기와 동물의 뼈를 조그맣게 갈아 구멍을 낸 발찌는 그 크기와 섬세함이 대조를 이룬다. 다양한 종류의 꾸미개와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조가비 탈도 있다. 동그랗게 뜯 두 눈과 크게 벌린 입이 수 천 년의 세월동안 무엇을 외친 걸까.

청동기·초기 철기실은 농경문청동기를 입구에 전시하고 벽면에는 農耕文을 그려 넣었다.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고 사회분화 현상이 일어나 지위 구분이 생긴다. 팽이를 치켜들고, 밭을 일구며, 항아리에 담은 모습에서 풍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보인다.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銅劍은 중국요령 지방에서 들어와 한국식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화살촉과 화살대가 함께 출토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원형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다. 이 시기부터 나타나는 고인들의 분포도 패널을 통해 확인해본다. 원삼국실은 철기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로 다양한 철기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 중국이나 왜, 북방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집단 매장 묘인 다호리 유적의 유물을 오늘날의 용도와 쓰임에 맞게 설명한다. 새 모양으로 장식한 토기가 보인다. 솟대 위에도 새가 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넘나들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새, 천상으로의 기원인가, 아니면 환생의 염원인가.

중국에서 한반도까지 대 제국을 이룬 고구려는 고분 벽화 속에 아직 살아 있다. 쌍영총의 돌기둥을 지나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힘차게 네발을 딛고 있는 청룡, 퍼덕이는 날개와 회오리쳐 솟을 듯한 꼬리의 주작, 살아 움직이는 유연한 현무, 힘껏 비상하는 백호. 그 웅혼한 기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직접 못 보는 아쉬움을 쌍영총의 말탄 사람이 그려진 벽화편을 보며 달랜다. 백제로 들어가기 전 금동대향로를 보며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물속의 龍부터 하늘로 오르는 鳳凰까지, 신선이 되어 한껏 취해본다. 백제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 우아한 문화를 창출하여 일본에 전한 국제 문화의 교차로이다. 무령왕릉은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고유의 유물까지 출토되어 국제성과 주체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와와 벽돌은 눈높이로 전시하여 가까이서 직접 느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다. 선이 굵고 강렬한 고구려와 화려하고 섬세한 신라에 비해 백제의 기와는 단순하나 그 속에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다. 무릉도원을 옮겨 놓은

듯 한 쪽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은 산수무늬벽돌에도 한가로움이 배어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철의 왕국 가야를 감싸 안는다. 대지를 가르며 무사의 호령 소리와 힘차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자연 채광을 이용한 전시는 역동적인 가야의 문화를 잘 드러낸다. 철의 생산 과정과 갑옷의 제작 과정, 투구의 변화, 말을 타기위한 도구 등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가야인의 기상이 느껴진다. 토기를 둘러 보며 연맹체에 머물러야 했던 아쉬움을 지닌 채 신라의 금관실로 들어간다. 파르르 떨리는 瓔珞, 천년의 세월을 쉬지 않은 그 떨림은 다시 한번 서라벌의 영광을 꿈꾸는가. 신라 장신구들의 공간 앞에 발걸음을 멈춘다. 화려함과 세련됨에 낮을 잃는다. 금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반지, 발찌 등을 다 걸치고 왕의 세계로 들어간다.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너무 무겁지 않을까. 유물 옆에 조그맣게 적힌 무게를 보는 순간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라게 된다. 평범한 신라인의 세계도 있다. 상형 토기를 하나하나 전시하여 당시의 생활 모습을 가까이서 느껴본다. 삶에서 죽음까지 일상의 모습도 있고 물, 땅, 하늘에 사는 동물들도 모아 놓았다. 토기마다 아기자기한 설명을 붙여놓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

고구려를 기반으로 넓은 만주에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한 발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통일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를 이룬다. 삼국을 통일하여 빛나는 불교문화를 구축한 통일신라실

은 큼직하고 무게있는 유물들로 꾸며져 있다. 성덕왕릉을 수호하는 십이지신상의 원숭이는 왕릉에 근접 못하도록 위엄을 뽐어낸다.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시대는 가고 넓은 月池를 비추는 달과 정교한 금속 세공 유물을 보며 그 때의 榮華를 떠올린다. 火葬의 성행으로 화려하게 꾸민 뼈담는 그릇이 보이고, 중생을 무지와 질병에서 구제하는 금동약사여래입상도 있다. 반쯤 부서진 사천왕상 벽돌에 새긴 악귀의 고통스런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우리 역사 범위를 넓힌 발해는 건축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海東盛國이라 칭송받으며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웠다. 기와, 주춧돌, 돌사자머리 등을 통해 독특한 함을 느끼고 엄청난 크기의 유적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불교의 유물에도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구려인의 숨결이 배어있다.

긴 과거로의 여행을 마친다. 현대식 건물, 최첨단 설비 속에 고대인이 있다. 금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활을 맨 채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리**





## 거창하지 않아도 소중한

새 박물관에서 선보인 전시관 중의 하나가 역사관이다. 역사 자료란 주로 책, 문서, 지도 그리고 금석문들을 포함한다. 누가 우리더러 기록에 소홀한 민족이라고 했던가. 박물관 아래층에 넓게 자리한 역사관에 들어서면 화려하고 거창한 유물만 소중한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사라진다.

역사관은 크게 한글, 인쇄, 금석문, 문서, 지도 5부분으로 나누어진 문자 자료들과 왕과 국가, 사회경제, 전통사상, 대외교류 등의 생활 자료로 구분된다.

먼저 한글 자료실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전시물은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간송미술관에서 어렵게 대여한 이 국보는 오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단아한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는데,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으뜸 보물이다. 또 월인석보를 비롯하여 편지와 책 등을 통해 한글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한글 못지않게 중요한 유산이 또 있으니 금속 활자다. 전시실 가운데 사방을 유리로 만든 특별 진열장에는 고려 시대의 금속활자 한 점이 있다. 북이라고 새겨진 이 활자가 발견됨으로써 앞서있던 고려의 인쇄 기술이 증명되었다. 바로 옆에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전시되었다. 문자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때 선조들의 문화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고

풍성했음을 느끼게 한다. 박물관에서는 이번 인쇄 전시실을 열면서 그동안 창고에 있던 많은 금속 활자 자료를 정리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한다.

옆의 금석문 방으로 가면 비석의 나라다운 유물들이 있다. 남산과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북쪽으로 난 창 앞에는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가 서있다. 원래 자리인 비봉을 보고 있는 순수비는 추사 김정희가 읽고 신라의 것임을 밝혀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한데 천오백여 년의 비바람을 견디고 이제는 용산에서 편히 쉬고 있다. 광개토태왕비 탁본도 전에는 천정이 낮아 선보이지 못했던 웅장한 유물이다.

글은 역시 종이에 남긴 것이 가장 많다. 노비를 팔고 사는 계약 서류들, 소송 관련 문서, 과거 합격 통지서등 공적인 문서뿐 만 아니라 사적으로 주고 받은 편지까지 골고루 있다. 특히 지금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 옛 사람들의 手決을 보면 이름을 각자 디자인하여 한껏 멋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이나 퇴계처럼 이름난 선비들의 수결을 보는 재미도 있다. 그런가하면 노비 문서의 경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손바닥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손가락의 각 마디를 눈금처럼 표시해서 서명을 대신하였다. 지금이라도 그 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겹쳐보며 노비로 사느라 평생 고단했던 그 손의 주인공을 떠올려볼 수도 있다.

지도실로 들어서면 방 한가운데 한반도가 넓게 펼쳐진다. 조선시대 鄭尙驥가 제작한 동국대전도를 확대하여 타일로 구워 깔아놓은 것이다. 한반도 북부 지방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강조되어 있으며 관문, 산성, 육로와 해로 등 군사시설과 교통망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어 관람객 모두 우리 땅을 구석구석 밟아 볼 수 있다. 각 지방별로 색을 달리하여 표시한 도시와 고을 들을 밟으면 역사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 흐르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더욱 귀중하다. 또한 都城의 모습을 그려낸 군현지도, 군사 지도인 關防지도,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 산소의 위치를 표시한 山圖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역사관에서 지나치지 말 것은 각 방마다 마련된 영상자료들이다. 물론 유물을 소개하는 패널도 다른 방과 달리 상세하다. 그러나 영상자료는 패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과 흐름을 짚어준다. 영상 자료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유물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유물 한 점 한 점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지 즐거운 놀라움에 흠뻑 빠지게 된다.

생활 자료 부분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층의 생활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정조의 화성행차를 상세하게 묘사한 병풍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음식을 먹었으며 공식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한 눈에 파악된다. 이에 비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훨씬 간단하고 조촐하다. 화려하진 않아도 지나 저울 같은 계량도구, 신분증인 호패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유물들을 보면 '아 저들도 다 우리처럼 먹고 입고 사는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었구나, 살아남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소박한 역사의식이 오롯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우리 정신세계의 큰 흐름인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의 대표적 유물을 통해 옛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느껴보는 기회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이웃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대외교류 관련 유물이 말해준다.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모습을 그린 조선의 그림과 일본의 그림을 비교해보거나 티벳글자로 쓰인 문서 등을 대하여 남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것도 박물관에서가 아니면 해보기 어려운 색다른 경험이다. **진**



〈고종이 세자를 책봉하며 내린 敕命〉



## 마음 맞는 벗과 산천유람 하듯

미술관 I 에는 서예실, 회화실, 불교회화실, 목칠공예실이 있다. 문자 예술을 알리는 힘찬 글씨가 서예실로 이끈다. 따로 독립공간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그 의미는 한층 크다. 금석문에서 시문에 이르는 다양한 글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먼저 패널을 통해 시대별 흐름과 서체의 종류를 익히면 작품이해가 쉽다. 특히 이곳의 금석문은 당대의 서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석의 몸이 돌로 갈라져있는 <太子寺朗空大師碑>는 金生의 행서를 집자한 것이다. 신라의 왕희지로 추앙받은 그의 글씨는 필획이 굵직하고 붓을 빠르게 돌려 기운이 활달하다. 고려시대까지는 순수 필적 자료가 드물어 돌에 새겨진 것을 榻本하였다. 한쪽 벽면에 가득 펼쳐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탑본. 그 안에 명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글씨가 비석과 종이, 비단 뿐 아니라 鐘身에 새겨졌다는 사실은 새로운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松雪體의 대가였던 李嶠의 탑본과 안평대군이 19명의 문사들에게 짓게 했다는 <匪懈堂 瀟湘八景詩帖>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마치 춤추는 듯한 자암 金絳의 초서는 그대로 추상화이다.

주로 조선시대 그림이 전시된 회화실은 공간이 넓다. 마음 맞는 벗과 산천유람 하듯 느긋함으로 즐기라 한다. 그림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렸는지 제작과정을 알고 보면 더 풍성해진다. 확연히 달라진 전시형태로 궁금증



<정양사도>

이 해소된다. 顔料 관련 유물인 <北塞宣恩圖>를 보며 어떤 안료로 채색하였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 본다. 금강산을 여행하며 그린 김홍도의 밑그림은 곳곳에 고친 흔적들로 정겨움이 더 한다.

畫目별로 전시된 방에는 초상화, 풍속화, 고사에 나오는 인물화가 있다. 터럭 하나 점 하나까지 자세하게 표현된 초상화는 인물의 성격은 물론이고 감정까지 살아있는 듯하다. 조선 초기에서 후기로 변해가는 신수화의 모습도 만나게 된다. 소동파의 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렸다는 <적벽도>는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문인의 모습은 아닐런지. 눈을 돌리면 후기 진경산수화인 鄭澈의 <正陽寺圖>가 보인다. 巖山은 예리한 필선을 죽죽 그어 내린 수직준으로 그 위용을 과시한 반면, 土山은 米點을 찍어 윤기있게 표현했다. 한쪽 벽면에 길게 펼쳐진 <세한도>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10여 미터의 두루마리를 끝까지 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전체를 볼 기회가 드물었으나, 이곳의 특징인 긴 진열장 덕분에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화가들은 주변의 꽃과 새, 동물들을 소재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림을 그렸다. 귀여운 강아지를 품은 어미개의 표정은 의젓하고 흐뭇해 보인다. 화려하게 채색된 궁중장식화에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한 소박한 민화까지 다양하다.

금박의 아름다운 관음보살이 불교회화실로 인도한다. 불화 크기에 맞추어 천정이 높게 설계되었다. 예배, 교화, 야외 의식, 장엄용 불화들이 전시되어 있고 패널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죄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거대한 모습으로 지옥 광경을 내려다본다. 하단의 끔찍스런 사건에 비해 그의 모습을 부드럽게 그린 것은 의외이다. 홍색 종이에 은으로 글씨를 쓴 法華經은 상당히 화려하다. 이곳의 백미는 부석사에서 제작된 10미터 높이의 괘불이다. 석가모니불이 범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이다. 올라다보고 있으면 조선후기 전란을 겪은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바로 옆 내부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야, 상단에 그려진 비로자나불과 양 옆의 약사불,

아미타불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미술관 복도 끝으로 살짝 보이는 처마를 따라 가면, 창덕궁 연경당의 일부를 재현한 사랑방이 자리하고 있다. 창밖의 나무들은 정원인 양 느껴지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향에 취해 그곳에 살고 있는 듯한 꿈을 꾸다. 격자문을 통해 스며든 오후 햇살이 글을 읽고 있는 선비의 이마에 머물다 양증맞은 연적을 비춘다. 주인을 닮아 검소하고 단순한 가구들이 놓인 방안, 벽에 걸린 李恒의 <묵란도>가 최대의 치장이다. 안주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을까, 어찌면 좌경 앞에서 딸아이의 머리를 매만져주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그들이 생활하는 안방은 따뜻하고 화사하게 느껴진다. 곁에는 취향에 맞게 아름다운 나무결이나 나전, 화각으로 장식한 가구를 두었으리라.

사랑방 마루에 앉자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 옛날 뒤결의 소나무를 돌아 안방 원앙장의 무늬결을 타고, 선비의 손끝에 머물다 묵향을 실어 온 것인가. 그 바람에는 옛사람들의 꿈과 삶이 배어 있다.  정



(책거리, 조선 19C)



## 섬세하게 빛은 미소 · 선 · 색

미술관II는 불교 조각실, 금속 공예실과 도자 공예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불교 조각실은 감산사 미륵 보살의 미소로 시작된다. 입구 왼편의 철불과 화강암 불상들은 자연채광으로 환히 빛난다. 큰 덩치 때문에 사연이 많았던 춘궁리 철불도 이곳에서는 갑갑해 보이지 않는다. 잔뜩 위엄을 부리고 있지만 慈情 깊은 아버지 같다. 2층의 불교회화실과 이어진 내부 계단 위쪽의 佛頭들은 또 얼마나 은밀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지.

원오리 출토 塑造 보살상은 만지면 온기가 전해 질 듯 정겹다. 단순한 선 때문에 강인해 보이는 양평 출토 金銅佛立像은 고구려 불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화려한 관음보살상도 예사롭지 않은 앗음새로 눈길을 끈다. 라마양식의 영향이다. 휴대용 불상인 불감은 소꿉놀이 기구처럼 앙증맞다. 여기에 바친 선조들의 염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불교조각실의

상징적 존재는 반가사유상이다. 맨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르라고 권하고 싶다. 욕심을 버리고 지긋이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금속 공예실에는 금, 은, 동, 주석 등으로 만든 공예품들과 불교용품이 있다. 화려한 장신구를 볼 때마다 들었던 의문이 전시실에 받을 넣기만 해도 스르르 풀린다. 자세한 설명 덕분이다. 낱알 장식과 새김기법을 병행해 만든 <녕쿨무늬 은제 도금 瓢形瓶>을 보면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된다. 사람의 손길이 이리 섬세할 수 있구나! 불교 전래 이후에는 공양탑과 사리그릇, 향로, 정병 등 주로 불교 의식구 주조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로 오면 생활용품이 많다. 청동은 입사 정병과 장중하면서 맑은 소리를 내뿜는 범종들은 우리 금속 공예품의 백미이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 유물을 꼽으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도자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빼어난 자태 뿐 아니라 풍부



한 물량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자공예실은 고려 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실로 나누어져 있다. 도자공예의 시작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빙렬 하나 없이 은은한 광택을 뽐는 비색청자에 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지런한 주름 자락과 팽팽한 몸매, 얇은 꽃잎이 벌어진 듯한 입술, 국보 94호인 청자참외모양 병을 보면 숨이 멎는다. 세 마리 토끼가 떠받치고 있는 청자투각 칠보무늬 향로의 아름다움은 비유할 말이 없다. 낮을 잃고 바라보는 수밖에. 청자 양각 모란넝쿨무늬 막새로 지은 상상속의 집 한 채는 화려함의 극치이다.

분청사기실로 넘어가면 활기가 넘친다. 투박한 선과 색이 뿜어내는 자유분방한 기운 때문이다. 귀얄과 이른바 덩병 기법이라는 粉粧사기는 자연스러움이 매력이다. 충청도에서 주로 생산된 철화 분청사기는 고대 이집트 토기의 문양 같기도 하고, 피카소의 붓질처럼 세련미가 넘친다. 한없이 꼼꼼한 인화 국화무늬 병은 단정한 품세가 일품이다. 생긴 모양부터 은근히 해학적인 장군은 여러 점을 두고 비교해 보아도 재미있다.

백자는 조선 전시대를 통해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백색, 텅 빈 듯하나 완벽에 가까운 충만감이 느껴진다. 15~16세기에 제작된 백자 대접과 향아리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무늬를 새기거나 그려도 튀지 않고 검박하다. 국보 170호인 백자 청화 매화 새 대나무 무늬 향아리는 안정된 형태 뿐 아니라 곁들여진 花鳥圖도 눈을 즐겁게 한다. <백자 철화 끈무늬 병>

은 절제가 미덕인 사회에서 살짝 엿보는 일탈의 흔적 같다.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秀作이다.

도자실은 국보가 가장 많아서 명품 전시실이라고도 한다. 미공개 유물을 보존 처리하여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도자의 변천사와 제작 과정, 장식 기법의 종류 등에 대한 패널만 꼼꼼히 챙겨도 교육적 효과는 만점이다. 백자에 자주 나타나는 꽃과 열매 문양을 뽑고 회화의 표현까지 소개해 두었다. 서양의 미술사조는 꿩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도자는 빛의 照度와 전시기법에 민감하다. 청자는 은은한 조명으로 백자는 받침 없이 소박한 진열로 특징을 살렸다. 최적의 전시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ㄴ河





## 고유함 속에 또 다른 문화

새롭게 마련된 아시아관은 인도네시아·중앙아시아·낙랑유적출토품·신안해저문화재·중국·일본실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와 주변 아시아국가들간 역사·문화적 연관성과 우리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획의 장이기도 하다.

많은 수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열대우림의 나라 인도네시아. 300여 종족이 수 백 개가 넘는 고유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문화·종교·관습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실에는 청동도끼, 금제 허리띠 등 국보급 유물들이 고대문화를 전해주고 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불교, 힌두교 관련유물을 보면서 전시실 안에 퍼져있는 종교의 향기에 취하게 된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어깨, 강인함이 엿보이는 청동부처입상 앞에 선다. 어부들의 수호신으로서, 험한 바다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느껴진다. 귀중한 문화재로 6개월 후에는 다시 돌아간다 하니 한참을 더 바라보게 된다. 조금은 낮설어 보이는 비쉬누, 시바, 가네샤 등 힌두신이 그 옆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寶冠, 옷, 장식물로 한껏 치장한 두르가에서 관음보살의 모습이 교차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신앙심이 유물 하나하나에 배어있다.

중앙아시아실에 들어서면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가 한눈에 들어오는 붉은 빛 지도가 맞아준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멀리 지중해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와

민족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다. 이로 인해 문화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것을 창조했다. 전시유물들은 일본 오타나 탐험대가 수집해온 것으로, 광복과 더불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남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복잡한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베제클리사원의 誓願書를 보면서, 同病相憐인지 보는 기쁨과 더불어 귀중한 유산을 약탈당한 그곳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란히 놓여진 불두들에서 시대별 동서양 문화의 어우러짐이 잘 나타난다. 天部胸像은 신이기 보다는 그 시절을 살았을 정갈한 세속의 여인같이 다가온다. 통통한 얼굴, 높게 틀어 올린 머리, 붉은 의상, 이마의 화전까지 驕馬女人像은 唐代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인의 마음은 같으리라. 익살스런 표정의 목제인형과 벽화, 토기 등 부장품에서는 보다 나은 내세를 기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엿보인다. 그동안 쉽게 볼 수 없던 문화이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다.

漢四郡의 하나였던 樂浪, 고조선의 역사가 그대로 스며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시절 독자적인

고조선 역사와 문화를 왜곡시키고, 그들의 식민 사관에 꿰어 맞추려 조사 발굴했던 유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유물들로 인해 고조선의 숨결이 우리에게 사실로 전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이곳은 패널을 읽어야만 관람의 이해가 손쉽다. 정교한 鑲金기법의 허리띠 버클과 장옥 등, 유물들이 시대별 무덤 형태에 따라 전시되고 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 저 깊은 곳에서 60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참고 견디다 다시 환한 빛을 맞게 된 유물들이 신안해저문화재실에 자리하고 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元代 중국무역선에서 건져 올려진 물품들로, 14세기 고려·중국·일본 간의 상호무역관계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많은 해저유물 중 몇 점의 작은 고려청자가 더 빛나 보이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중국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 박물관 소장품만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고대유물·도자기·회화로 구성되었다. 시대적 특성을 쉽게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주제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였다. 고대유물의 경우 우리 유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섬뜩함 마저 들게 하는 금빛 가면과 해바라기 모양의 작은 은잔이 눈에 들어온다. 그 앞으로 목직 한 모습의 청동북이 놓여있다. 상단 가장자리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개구리 장식은 아마도 개구리의 울음처럼 청명한 북소리를 원했던 듯하다. 어떤 소리일지 북채를 들고픈 욕심이 생겨난다. 唐代 유물인 三彩馬가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백마인 듯 우유 빛 몸체에 과감한 터치의 남빛 갈기. 그리고 녹과 황의 마구를 한 걸작에서 오래도록 머무르게 된다. 청자, 백자, 청화백자, 분채 등 시대를 이어 내려오는 중국 도자기들이 자신들만의 빛과 향을 내뿜고 있다. 특이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3대를 그린 先世圖이다. 표정 없이 근엄한 모습의 님은 얼굴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처럼 닮아가는가 보다. 그림 속에 나의 가족얼굴을 넣어본다. 가깝지만 멀게도 느껴지는 섬나라 일본. 고대유물·시대별 회화·종교관련 유물·자기류·생활용품들이 일본실에 전시되어 있다. 관람 동선이 타 전시실과 조금 다르게 이루어졌다.

아시아관을 통해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는 국가나 민족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각자의 고유함 속에 또 다른 문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 용감한 여자 장군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이 지원 (서래 초교, 3)

“지원아 엄마랑 박물관에 가자.”

얼마 전 용산 국립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엄마는 또 박물관에 가자고 하셨다. 구경하기에 사람도 너무 많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가기 싫었다. 하지만 새 박물관 안의 어린이 박물관은 직접 만져보고 놀이체험도 할 수 있다니까 어떤 곳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어린이 박물관에 들어가니 전에 가던 박물관과 많이 다른 것 같았다. 입구에서 주의 사항과 관람방법에 대해 안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 맨 처음 ‘따뜻한 집’이라는 곳에 커다란 움집이 서 있었다. 그 안에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과 도끼, 그물을 보았다. 바닥에 앉아 구석기시대생활



영상을 보니 지금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살았을까? 너무 불편했겠다. 갈판에 벼 이삭을 넣고 갈돌로 갈아봤다. 사람들이 여러 번 갈아 곱질 벗겨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없었다. ‘기와맞춰보기’가 있었는데 기와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기와집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 못을 쓰지 않아도 집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참 놀라웠다.

쌀과 밥, 농사짓는 도구라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옛날과 오늘날의 부엌이 나란히 있고, 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옛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궁이와 가스렌지, 토기와 지금의 그릇 등을 비교해 보고 옛날 밥상도 차려보았다. 밑에 구멍이 난 시루라는 그릇으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옛날 여자들은 부엌일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릇 박사가 되어봅시다’라는 게임은 컴퓨터가 고장나서 해 볼 수 없었다. 많은 아이들이 함부로 사용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만지고 움직여보는 체험학습장이라도 아끼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각난 그릇 맞추기를 하면서 내가 마치 고고학자가 된 느낌이었다.

나무 울타리가 둘러진 곳에 들어가니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갑옷 등이 있었다. 들기에도 힘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 보았다. 용감한 여자 장군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입고 어떻게 말을 타고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장군은 대장이라 직접 안 싸우고 지휘만 해서 괜찮다고 했다. 화면을 보며 택견을 따라해 보았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크' 하는 기합소리까지 크게 따라할 정도로 재미 있었다.

마지막은 마음과 영혼의 소리라는 곳이다. 추장 같은 모습의 제사장이 늙름하게 서 있었다. 제사장이 사용하던 도구들이 악기로 발전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웃는 얼굴처럼 보이는 세 명의 커다란 토우가 옛날 악기를 들고 있다.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인데, 이곳의 토우는 폭신평신향 형겼으로 만들어져 참 부드러웠다. 박물관에 노래방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친구와 함께 들어가 서동요를 따라 불렀다. 불빛도 반짝이고 화면에 내 얼굴도 나와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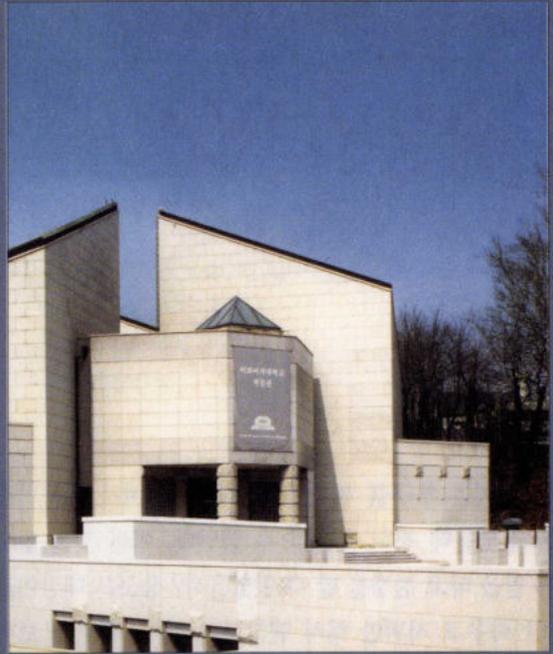
관람시간 끝나는 종이 울렸다. 나가기 싫었는데 관람실 밖에 또 다른 체험교실이 있었다. 원시생활에서 불을 지피는데 사용한 활비비를 힘껏 돌려보았다. 불씨가 안 생긴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활비비를 만져보라 하셨다. 문지른 곳이 정말 따뜻했다. 다음번엔 꼭 불씨를 만들



어 봐야지. 처음으로 가야금을 튕겨보고 장구도 두드려 보았다. 잘 못하지만 계이름을 따라 연주해 보기도 했다.

체험교실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만지고 느끼는 체험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고 하셨다. 또, 어린이들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망가지거나 낙서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마구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고 물건을 함부로 던지는 어린이는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다리가 아프거나 지겹지도 않았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속상했다. 다음번에 오면 다른 체험도 해봐야지. 우리들의 신나고 즐거운 어린이 박물관에 벌써 또 가고 싶어진다. 

## 젊은 이화여대 박물관



이화여대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바로 박물관이다. 캠퍼스의 상징인 대강당으로 올라가기 전 이화광장 왼편에 있다. 70년 전에 개관했으니 역사도 긴 편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사명감으로 시작된 박물관은 6.25전란으로 전시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부산 피난지에서도 문을 열어 자긍심을 이어가다가 신촌 캠퍼스로 돌아오면서 점점 박물관다운 모습을 갖춰갔다.

현관을 들어서면 천정이 높은 원형 로비가 맨 먼저 손님을 맞는다. 1층은 상설전시실이다. 매회 정해진 주제에 맞춰 작품성이 뛰어난 유물들을 다양하게 선정해 이야기가 있는 전시로 꾸며진다.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고고, 민속, 미술 등의 소장품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던 이전의 전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곳의 대표 유물은 국보 제107호 백자철화 포도문 향아리이다. 백자철화 용무늬 향아리 등 십여 점의 보물, 청자상감 용그림 매병조각, 중요민속자료인 조선시대 綠圓衫, 대삼작노리개 등의 장신구, 모두 세간에 잘 알려진 것들이다. 조선중기 金履安 초상과 閔泳翊이 그린 묵란, 李匡師의 초서 등도 눈에 띄는 소장품들이다. 2층은 기획전시실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1년에 두 번 정도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이 열리는데, 기획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에는 이 대학이 자랑하는 담인복식미술관과 기증전시관, 전문도서관과 도판자료실이 있다. 기증전시관은 애지중지 소장해 온 문화재를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한 상설전시 공간이다. 모든 기증품은 1년에 한 번씩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두 번씩 교체 전시하고 있다. 담인복식미술관은 장숙환

교수의 개인 소장품 4천여 점을 기증받아 개관하였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양반계층의 장신구와 의복, 수예품, 목공소품, 가구 등이 1년 내내 전시되고 있다.

이화여대 박물관이 특히 주목 받을 때가 있다.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이 열릴 때다. 이곳에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전시가 기획된다. 1970년대 초반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열리는 특별전은 다른 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단순한 유작전이나 개인전과는 매우 다르다. 올 봄에 열린 특별전은 <시간을 넘어선 울림-전통과 현대>라는 제목이었다. 像·物·劃·즉 소재·재료·기법의 측면에서 현대 미술작품과 전통 유물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지금은 <도예가의 길-도공·과학자·예술가 황중구 展>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관람객이 직접 전통 상감기법으로 청자 잔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끼워 넣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그간의 특별기획전 목록을 훑어보니 놓친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귀한 전시가 많다. 미술관 같은 분위기의 박물관! 벌써 다음에 열릴 특별전이 기다려진다.

이곳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원봉사자 활용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 도슨트제도를 두어 박물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슨트는 전시작품의 해설과 안내를 담당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본교 학생들이 주로 활동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전시장 분위기는 따뜻하다. 눈동자를 빛내며 최선을 다해 전시물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의 안내를 받으며 관람하는 박물관, 얼마나 매력적인가? 대학박물관이면서도 일반 관람객이나 단체 관람이 많은 것이 단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편리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자랑거리는 이 밖에도 많다. 도자기 전문박물관으로 알려질 정도로 명품들이 많고, 또한 도자연구 전문기관답게 가마터 발굴과 조사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전남 영암군과 가마터 발굴을 계기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도기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달맞이 행사와 유물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기획·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문화를 호흡하기도 한다. 특히 전시가 열릴 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 중앙으로 집중된 전시문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학 박물관은 복식, 현대미술, 목공예, 문방용구 등 다른 소장품들의 수준도 높다. 학예사가 많은 것도 장점인데, 일찍부터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대학박물관으로는 드물게 보존과학 전공 학예사를 두어 도자기 복원까지 가능하다. 중축 공사를 하면서 지진이나 폭격 등에 의한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소장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면진시스템도 도입했다. 규모는 작지만 직접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기념품점도 내용이 충실한 편이다.

오진경 관장의 말처럼 이제는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이어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와 연결 짓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럴수록 젊은 박물관을 표방하는 이화여대 박물관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백자철화포도문 향이리>

# 발해고서

원문 : 유득공 / 번역 : 유중용 (회원)

고려가 발해사를 편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려가 대외적으로 떨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高씨가 북쪽에 자리하고 살았으니 고구려라 하고, 扶餘씨가 서남쪽에 자리하고 살았으니 백제라 하고, 挾, 昔, 金 씨가 동남쪽에 자리하고 살았으니 신라라 했다. 이들이 삼국이 되었으니, 마땅히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했고, 고려가 그 역사를 편수한 것은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는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여 발해라 부른다. 이를 남북국이라 이르니 당연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바로 고구려의 땅이었으니, 동쪽으로 치고, 서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쳐서 더 크게 했을 뿐이다.

그 김씨가 망하고 대씨가 망함에 미쳐 왕씨가 합쳐서 차지했으니 고려라 한다. 남쪽의 김씨의 땅은 온전하게 가졌지만 북쪽의 대씨의 땅은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해서 혹 여진에 편입되기도 하고, 혹 거란에 편입되기도 했다. 바로 이때에 고려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빨리 발해사를 편수하여 그것을 가지고 여진에게 추궁해야 했다. “왜 발해의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의 땅은 바로 고구려의 영토였다.” 고 주장하면서 한 장군을 보내서 수복하게 하였더라면, 토문강 북쪽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발해사를 가지고

거란에게도 추궁해야 했다. “왜 발해의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의 땅은 바로 고구려의 영토였다.” 고 주장하면서 장군을 보내서 수복하게 하였더라면, 압록강 서쪽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는 발해사를 편수하지 않아서 결국은 토문 이북의 땅과 압록 이서의 땅이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서, 여진에게 추궁하려 해도 할 말이 없고, 거란에게 추궁하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영토를 얻지 못한 까닭이니 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발해는 요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고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역사를 찬수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발해는 중국의 제도를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史官을 두었을 것이다. 흘한성(忽汗城: 당시 발해의 수도로 지금의 吉林省 敦化 지방)이 격파되고 발해의 세자 이하 십여 만 명이 고려로 귀부했으니, 그 중에 사관은 없었더라도 반드시 史書는 있었을 것이다. 가령

그 중에 사관도 없고 사서도 없었더라도 세자에게 물어 보았다면 왕가의 世系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隱繼宗(발해 말년의 유명한 학자로 태조 때 고려로 망명한 사람)에게 물었더라면 그 문물제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망명한 십여 만 명에게 물어보았다면 모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張建章은 당나라 사람인데도 오히려 渤海國記를 저술했는데, 왜 고려 사람들은 유독 발해의 역사를 찬수할 수 없었는가?

아! 문헌이 흩어져 없어지고 난 몇 백 년 후에는 비록 그 역사를 찬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규장각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거기 비장된 서적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발해의 사적들을 차례로 엮었으니, 君·臣·地理·職官·儀章·物產·國語·國書·屬國 등 아홉 항목의 상고한 글들이다. 世家, 傳, 志라고 하지 않고 考라고 한 것은 완성된 역사서가 아닐뿐더러, 자기 혼자서 쓴 것을 감히 사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㉞

# 渤海考序



## 渤海考序

高麗不修渤海史 知高麗之不振也. 昔者高氏居于北曰高句麗 扶餘氏居于西南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曰新羅 是爲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 是矣.

及扶餘氏亡 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 非矣.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而斥其東斥其西斥其北而大之耳.

及夫金氏亡大氏亡 王氏統而有之 曰高麗 其南有金氏之地則全 而其北有大氏之地則不全 或入於女真 或入於契丹 當是時 爲高麗計者 宜急修渤海史 執而責諸女真曰 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 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土門以北可有 執而責諸契丹曰 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 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鴨綠以西可有也

竟不修渤海史 使土門以北鴨綠以西 不知爲誰氏之地 欲責女真 而無其辭 欲責契丹 而無其辭 高麗遂爲弱國者 未得渤海之地故也 可勝歎哉

或曰 渤海爲遼所滅 高麗何從而修其史乎 此有不然者 渤海憲象中國 必立史官 其忽汗城之破也 世子以下 奔高麗者十餘萬人 其無官 則必有其書矣 無其官無其書 而問於世子 則其世可知也 問於隱繼宗 則其禮可知也 問於十餘萬人 則無不可知也.

張建章唐人也 尚著渤海國記 以高麗之人 而獨不可修渤海之史乎

嗚呼 文獻散亡 幾百年之後 雖欲修之 不可得矣 余以內閣屬官 頗讀秘書 撰次渤海事 爲君. 臣. 地理. 職官. 儀章. 物產. 國語. 國書. 屬國 九考 不曰世家傳志 而曰考者未成史也 亦不敢以史自居云

甲辰 閏三月 二十五日

- 柳得恭[1749-1807]: 조선의 실학자로 字는 惠風 또는 惠甫라 하고, 호는 영재(冷齋)라 했다. 이덕무, 박제가 등과 규장각 검서로 군수, 부사 등을 지낸 북학파의 학자다. 문집인 冷齋集과 京都雜誌, 古芸堂筆記, 渤海考, 二十一都懷古詩 등을 남겼다.



〈禪定印 금동불좌상, 독섬 출토, 5C 전반〉

## 4.9cm의 大作

곽 동 석 (국립청주박물관장)

서울 독섬제방을 따라 상류 쪽 약 1km 떨어진 곳에서, 1959년 4월 형무소 죄수들이 땅파기 작업을 하였다. 우연히 손가락 마디 크기의 금동불이 발견되자 간수는 불상을 황급히 박물관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故 金元龍선생은 단번에 불상이 예사 유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발견 현장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발견된 장소에서는 어떤 유구나 반출물도 없었으며, 발견자도 불상이 돌 틈에 박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혹 다른 곳에서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년 뒤, 김원룡 선생은 불상 형식이 중국 초기의 禪定印 여래좌상과 흡사하기에 400년경 중국에서 백제로 전해진 華北佛로 추정할 글을 발표하였다. 그 근거는 불상이 출토된 한강 지역이 당시에는 백제의 세력권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백제에서 6세기에 만든 선정인 여래좌상의 출토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독섬 금동불은 우리나라 초기 불상을 이야기할 때 가끔 언급되었으나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수입된 불상인지, 중국불상을 모방한 국내작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에 박물관 전시공간에 떳떳하게 자리 잡기 어려웠다.

〈삼국시대 불교조각〉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독섬 금동불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아무리 그래도 손바닥 크기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겨우 손가락 두 마디에 불과한 4.9cm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의 때 슬라이드로 비춰주면, 정적이면서도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다가 실제 크기를 얘기하면 모두가 탄성을 지른다. 스크린에 비친 화면은 실제보다 20배 이상 확대되었을 텐데 조형적으로 어색한 구석이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뜻일 것이다. 작품의 설치 위치(높이)와 확대 배율까지 조각가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서양의 인체 조각과 구별되는 동양의 觀念的 美感의 결과라고나 할까.

당시 중국 금동불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기에 선학들의 가르침대로 전시품 설명카드와 도록에 제작연대를 '중국 5胡16國時代 500년 경'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국의 문화나 미술 양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모방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비로소 고유한 미감을 반영한 민족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공백기로 남아 있는 불교전래 이후 500년까지의 삼국시대에는 독섬 금동불처럼 당시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선정인 여래좌상을 수입하거나 모방한 예배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과연 이는 중국 수입 불상일까? 특별전 이후

1990년대 이후 유물·유물연구의 특징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여러 해 뒤 일본 출장 중 우연히 중국금동불을 직접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몇몇 중국 초기 선정인 금동불을 조사하면서 질감, 크기, 제작기법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 뒤의 희열이란…….

일본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수십 점의 중국 선정인 금동불들은 한결같이 높이가 7.4cm에서 9.1cm 정도였고, 모두 中空式 구조법이며, 얼굴에 비해 肉髻가 지나치게 높고 크다. 육계가 큰 것은 그 속에舍利를 넣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육계의 윗면에 단정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독섬 금동불의 크기는 중국 것의 1/2정도이며 속이 찬 通鑄式 주물로 육계도 아주 작다. 타원형의 얼굴 모습, 경사가 심한 어깨, 좌우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어깨선, 바깥으로 曲面을 이루는 상체의 윤곽, 폭이 넓고 수가 줄어든 정면의 옷주름, 좌우 무릎 아래로 드리운 옷자락의 불합리한 표현, 겨우 흔적만 남은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 표현, 낮고 넓은 대좌와 빈약한 하체 표현 등 독섬 금동불은 세부 표현형식에서도 중국과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에서 조성된 것이라면, 불상 전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크기를 줄이고 세부

표현을 생략·단순화시켜 통주식으로 구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출용 특별 제품인 셈인데, 이런 해석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일반적인 크기와 구조기법, 세부 표현방식의 뚜렷한 차이점은 독섬 금동불이 국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의 논리적 근거라 생각한다. 세부형식과 구조기법의 단순화와 규모의 축소는 原型의 모방과 變形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독섬 금동불은 5세기 초 정형화된 중국 선정인 금동불을 모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중국 초기 선정인 여래좌상은 북위 太武帝에 의해 廢佛이 단행되는 446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조성 시기는 400년에서 446년 사이의 어느 해일 것이다. 박물관 사람들의 유물사랑이란 많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종합적 직관력'의 산물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禪定印 여래좌상, 중국, 5C 초〉

## 기증 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신 명 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위창 오세창 필 상형고문)

2005년 상반기 葦滄 吳世昌 筆 병풍과 지도 2점을 기증한 한국박물관회는 다시 3점의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새 박물관이 다양한 전시 유물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 소장자뿐 아니라 법인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는 기증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기증은 2002년 이후, 외국에서 중요 문화재를 구입해 국내에 들여와 우리 문화재 되찾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새 박물관에 필요한 아시아 지역의 문화재 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 왔다. 이번 기증품은 위창 오세창 필 상형고문과 綺園 俞漢芝의 예서, 小亭 卞寬植이 그린 8폭의 百納屏으로 근·현대에 이름 난 작가들의 작품이어서 그 가치가 크다.

오세창의 글씨는 고대 상형문자의 추상성을 잘 나타내며 그의 나이 66세인 己巳年(1929)에 쓰여진 것이다. 魚·車·舟라는 상형고문이 크게 쓰여 있고, 양 가장자리에는 행서로 考證을 하였다. 조선 후기 서예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오세창(1864~1953)은 전서·예서에 뛰어났고, 전각에서도 높은 경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집한 서화 자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통해 『權域書畫徵』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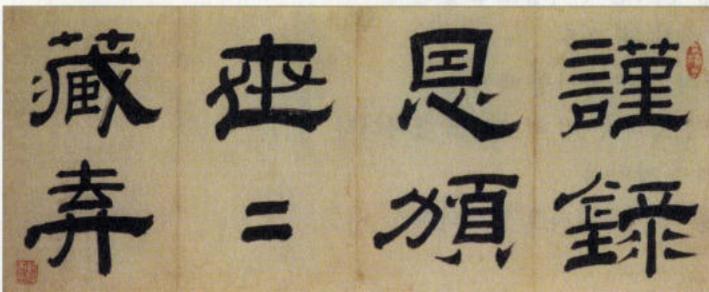
유한지의 예서는 중국의 古法을 충실히 따른 작품이다. '謹錄恩頒 世世藏棄' 라는 이 글씨는 '임금이 주신 책을 삼가 기록하여 대대로 간직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한지(1760~1834)는 당대 문장가로 영춘 현감을 지냈고 특히 전서와 예서로 이름이 높았다. 신위는 『警修

# 실상 삼 운도(實相三雲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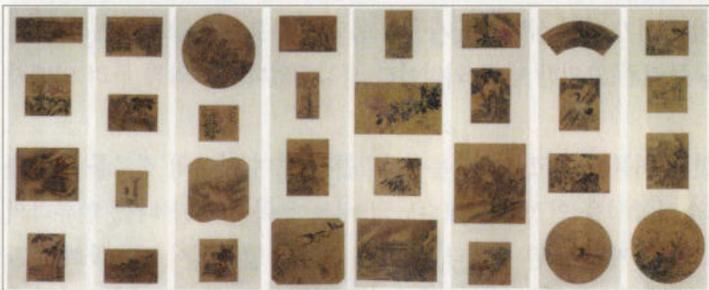
영춘현감 유한지

『堂集』에서 '영춘현감 유한지의 전서·예서가 당대 제일이다' 라고 했으며, <銀海寺影波大師碑>와 <문익점신도비>의 篆額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각 폭마다 4점씩 총 32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8폭의 백납병은 변관식이 丁巳年(1917)에 그린 작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백납병이란 작은 그림과 글씨, 탁본 등을 붙이거나, 기타 도장 등을 찍어 꾸민 병풍을 일컫는다. 이 백납병은 각기 다른 주제의 개별 작품으로, 山水·人物·四君子·花鳥·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8폭 백납병>

蘆雁·翎毛·器皿折枝·雲龍 등 다양하다. 1917년 서화 미술회에 입학한 변관식은 心田 安仲植(1861~1919)과 小琳 趙錫晉(1853~1920)에게 회화 수업을 받게 된다. 전통 기법을 숙련하던 시기에 그려진 이 병풍은 스승의 영향을 적잖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 쓰여진 石南이란 호는 외조부인 조석진과 친분이 있는 金益南이 지었으며 20세 이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 변관식이 근대작가로 크게 성장하기 이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기년작 중 초기작으로 보여 진다.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박물관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은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선진박물관 가늠의 기준이 되는 기증문화의 정착은 우리 박물관의 발전은 물론 문화선진국으로서의 도약에 적잖은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박물관회에 감사를 드린다. ㄷ

## 보배로운 섬 珍島

이 수 희 (회원)

진도 지산면 인지리 사는 조공례 할머니는  
소리에 미쳐 젊은 날 남편 수발 서운케 했더니만  
어느 날은 영영 소리를 못하게 하겠노라  
큰 돌맹이 두 개로 윗입술을 남편 손수 짓짚어 놓았는디  
그 날 흘린 피가 꼭 매화꽃잎처럼 송이송이 서럽고 고왔는디  
정이월 어느 날 눈 속에 핀 조선 매화 한 그루  
할머니 곁으로 살살 걸어와 입술의 굳은 딱지를 떼어주며  
조선 매화 향기처럼 아름다운 조선소리 한 번 해보시오 했다더라  
장롱 속에 숨겨둔 두 개의 돌맹이를 찾아와  
이 돌 속에 스민 조선의 핏방울을 꼭 터트리시오 했다더라

'조공례 할머니의 찢긴 윗입술'이란 시이다. 비녀 꽂은 검은 머리에 고운 한복도 화장도 없이, 무심한 얼굴로 들노래를 부르시던 할머니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사로잡는가. 그 소리는 무엇인가. 그 부름은 할머니 한 분만의 소리가 아닌 삼별초 군사들이 몽고에 투항하지 않고 지키려 했던,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부터의 침입을 물리친 고귀한 녀의 외침이라 생각되었다. 그 외침 들려 언젠가 꼭 한 번 가보리라 마음먹었다.

올해 박물관 강좌는 나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설강좌를 들으며 아이의 진로를 생각해 보았고 인류학과로 진학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수님의 비교 문화 강의가 나를 인류학의 매력에 빠지게 했다. 아이와 나는 그 분의 제자가 된 것이다. 강의와 연계된 답사에서 진도학회 주관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도에 대한 나의 오랜 짝사랑을 풀게 되었다.

진도는 독특한 풍습이 많다. 장례 문화 또한 특이하여 시신을 땅에 묻고 풀 따위로 지붕처럼 엮어 초분을 만든다. 몇 년 지난 뒤에 인골만을 추려 선산에 묻는다. 더러운 몸으로 선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살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씻는 의미로 간주하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울돌목, 바다라고 생각하기엔 상상이 되지 않는 빠른 물살로 어느 강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당골은 정유재란 때의 녀를 건져 올리는 의식을 행한다. 주발에 쌀을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밀봉하여



물에 던진다. 다시 건져 주발을 열어보니 주발위에 군화 자국이라는 자국이 남아있다. 전사자 제사는 우리 군사뿐만 아니라 일본 전사들의 위패도 모신다. 我·敵의 가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제를 지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씻김굿이 이어진다. 무명천에 매듭을 여러 개 매어서 기둥에 걸어놓고 당골이 이승에서 맺힌 한을 푸는 노래를 부르며 고풀이를 한다. 죽은 이의 몸을 상징하는 돛자리에 죽은 사람의 옷과 버선을 넣고 말아 짚으로 묶어서 몸을 삼고, 그 위에 짚 또아리와 종이로 오린 냇전을 담은 밥그릇을 올린다. 누룩을 차례로 포개어 엮어 얼굴로 삼은 후, 갓처럼 솔뚜껑을 엮는 영돈 말이를 한다. 이슬털이는 바로 씻김굿의 '씻김'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당골이 썩물과 향물, 맑은 물에 차례로 빗자루를 담가 영돈 말이를 벗어 씻긴다. '약사 지옥도 면하시고 도탄지옥도 면하시고' 노래를 부르며 당골이 자진모리장단에 춤을 춘다.

길 닦음은 곳을 통해 원과 한을 모두 씻어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길로 닦는 과정이다. 질베라 부르는 긴 무명천을 펼쳐놓고 당골이 그 위에 군사들의 모습을 한 작은 상여모형을 만들어 엮고는

나아가다 다시 돌아오고 또 나아가며 길을 닦아간다. 눈물 한 자락 지워내며 저승길 노잣돈을 올린다.

새김새김 청섭이요 나빈나빈 직순이요  
 웅실웅실 맹감이요 가운데 째숙 잘망이요  
 등덩애 덩 등덩애 덩 덩기 등덩애 등덩애 덩

선소리에 맞추어 등덩애 타령을 배운다. 이틀 밤을 소포리에 머물면서 저녁이면 아주머니들과 들노래와 베틀노래 등 소리를 엮었다. 이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풍습이 예술로까지 승화될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완도가 무인들의 유배지였다면 진도는 주로 문인들의 유배지였다고 한다. 유배 행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범이므로 철학과 고집 그리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많았다. 진도는 지리적으로 외딴 섬이지만,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식견을 가진 문사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문화 중심지였다.

거친 물살 너머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야만 이 다다를 수 있는 곳, 거기 우리의 원형이 살아있는 보배로운 섬 진도가 있다. 돌아오는 길, 남도 들녘 따라 어우러진 역사가 너울거린다. 조공례 할머니의 소리가 너울거린다. **VI**

신임 유창종 회장

## 한자락 햇빛같은 박수를



〈전임 유상옥 회장과〉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어느 시인의 시집 이름이다. 고향 집 휴담 위를 밝혔던 소박한 채송화가 떠오른다. 한국박물관회 10대 회장에 선출된 유창종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 박물관이 열리길 얼마나 기다렸던가! 연일 밀려드는 관람객에게서 가슴 벅찬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많이 혼란스럽다. 외면적 성장이 내실로도 이어질지 설렘과 우려가 교차한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지혜와 능력이 닿는 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대로 된 후원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우선순위로 잡았다. 규모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동북아 중심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유물의 수집과 기증을 권장하겠다고 한다.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또한 우리 회가 교육뿐 아니라 문화재단의 시설과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거울 못 카페에서 만난 신임회장은 박물관회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실천방법에는 지극히 말을 아꼈다. 화려한 이사진의 수락 과정을 설명하면서 살짝 낮빛이 밝아졌을 뿐이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진은 각계인사가 망라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기부해 주실 분,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 시간으로 봉사하실 분 등, 다양한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초점을 맞추었어요. 분야도 세분화하여 연예파트에는 안성기님이, 미술에는 이두식 홍대미대학장님, 그리고 지휘자 정명훈씨가 음악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바쁘신 분들이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단번에 승낙했다는 겁니다. 정명훈 서울시향 상임지휘자는 기금 마련 연주회도 열겠다고 하더군요. 박물관의 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박물관회가 사단법인이 된 1981년에 등록된 창립회원이다. 초기에는 답사도 자주 다니고, 좋은 추억이 많았다. 그때 박물관을 드나들면서 느낀 점들을 되새기며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새 박물관에서는 우리 회의 위상도 조금 바뀌었다. 더 잘 꾸러가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졌는지도 모른다. 그를 바라보는 눈길

이 자꾸 애뜻해진다. 그 마음을 읽은 것일까? 박물관과 우리 회의 관계를 다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연인 대하듯 하는 거지요. 아직은 박물관도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무얼 해 달라고 보채기보다는 아낌없는 사랑을 듬뿍 주어야겠지요. 연애할 때 무얼 바라고 사랑하나요?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진심은 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물관회와 회원의 관계는 조금 유리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주로 교육이나 답사에 참가할 뿐 회의 실체를 모르는 회원도 많다. 임원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그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이사회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매월 특정일로 정례화 시키겠다는 방안도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의원도 선임할 예정이다. 자주 만나야 소통이 원활해 지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 아닌가? 활로가 보이고 숨통이 트이자, 그간의 서운함이 조금 가신다. 회원 관리나 예우, 강좌 내용의 내실화 등 바램이 많다.

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아끼고 후원하는 응원단이다. 이 사회는 단원들이 멋진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흥을 돋우는 치어리더들이고, 유 회장 자신은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응원단장이라는 것이다. 즐겁게 펼치는 진심어린 애정 공세는 기대 이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먼저

깨우친 사람이 베푸는 것이 순서라고 취임 소감에서도 밝혔다. 그 베품은 특권이고 의무인 동시에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일각과 함께.

그는 누구보다 준엄한 이성을 가진 법률가이면서, 우리 문화에 늘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기증한 1,800여 점의 기와로 꾸며진 박물관 3층의 유창종실이, 말보다는 실천인 그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건 찬란한 족적을 남긴다.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열린 사고 덕분이 아닐까? 지난 11월 24일, 그는 한국박물관회 회장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가 넘나드는 경계에 소담스런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겨울의 첫 행보에 한 자락 햇빛 같은 박수를 보낸다. 



## 특별전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

국립중앙박물관은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전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가칭)”를 200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독도의 자연, 옛 글 속의 독도, 옛 지도 속의 독도, 독도 사람들이란 주제로 구성하여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해 온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전시 도입부는 마치 배를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일 정도로 연출하며, <독도의 자연>에서는 1/150로 축소된 모형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독도에서 자생하는 동·식물과 바닷속의 생태를 사진자료로 보여주고, 독도의 동·식물과 어류 등이 표현된 옛 그림과 도자기, 금속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옛 글 속의 독도>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지지 등 관련 기사가 언급되어 있는 고문서와 지리지를 전시한다. 대한제국의 칙령, 연합국 사령부의 한·일 영토구획지도 등 공·사문서를 전시하여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옛 지도 속의 독도>에서는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된 지도들을 한국,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제작한 지도로 구분하여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사람들>에서는 이사부 관련 기록, 안용복, 이규현 관련 기록, 울릉군수 심홍택 관련 기록, 독도의용수비대 자료, 독도의 최초 주민 최종덕 관련 자료, 그리고 현재 독도 경찰수비대 자료 등을 전시하여 고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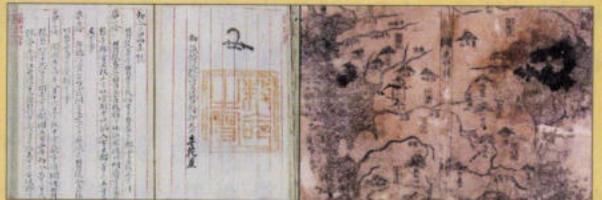
터 현재까지 독도를 지킨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독도에 보내는 편지, 독도 퍼즐 맞추기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초청강연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특별전이 열린 후 5월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고려시대 사람들”과 이나가키 테레즈가 기증한 작품을 전시하는 “폴 자크레 다색 판화전”,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특별공개전 “사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팀)



<독도 전경>



<칙령 41호>

팔도총도(동람도)  
목판본  
16세기 후반  
영남대박물관 소장

Theater  
**YONG**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월 3일 신년음악회로 새해의 포문을 열게 될 극장 용은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연극 ‘爾’의 앵콜공연에 들어간다.

연극 ‘이’는 온갖 천대와 멸시에도 누구보다 떳떳했던 궁중 광대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음모, 절대 권력을 행사 하던 왕과의 애뜻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룬 연극으로, 웃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한다.

2000년 초연되어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상, 희곡상, 연기상, 2001 동아 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등 연극계의 굵직한 상을 받았다. 연극 ‘이’는 역사의 숨결이 가득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갈등과 비극을 유쾌한 놀이정신으로 풀어내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2월에는 아동극 ‘마법의 날개’가 이어진다. 2월 4일부터 26일까지 공연될 ‘마법의 날개’는 2001년 세종문화회관 공연 당시 총 관람객 12,000여 명,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마법의 날개’는 거인처럼 커다란 마법사, 아카펠라 중심의 인상적인 음악, 환상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무대에서 하늘여행을 통해 기발한 상상력과 순수한 호기심으로 어린이들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극단 사다리와 함께 하는 이번 작품은 수준 있는 어린이 공연을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 가족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어서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연극 ‘날 보러와요’가 무대에 오른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인 연극 ‘날 보러와요’는 1996년 극단 연우무대에 의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렸다. 1996년 제20회 서울연극제 작품상, 연기상 수상, 1997년 세계연극제 공식초청작, 1998년 제16회 전국연극제 장려상, 제33회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신인연기상 수상 등의 성과를 올리면서 계속 공연되었다.

2006년은 연극 ‘날 보러와요’가 공연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이다. 10주년 기념 공연과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준비하는 프로젝트 ‘다시 보고 싶은 연극 시리즈’ 그 첫 작품으로 막을 올리게 된다. 

(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정명훈과 함께하는 박물관 콘서트

2006년 예정

한국박물관회의 이사로 선임된 정명훈 씨가 정명화, 데니스 김과 함께 박물관을 후원하는 콘서트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會長 | 徐載亮 · 吳志哲  
 理 事 | 李健茂 · 朴仙卿 · 朴亨植 · 申硯均  
 安聖基 · 李斗植 · 李仁洙 · 田永采  
 鄭明勳 · 池健吉 ·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 鄭建海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柳昌宗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삼성물산 회장  
 慎昌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다움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다움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李起雄 열화당 대표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洪錫肇 광주 고검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전 화 : 2077-9790~3  
 홈페이지 : www.mumes.org

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매듭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의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 이 책을 만들면서

동..동..동.. 북이 울린다.  
한가닥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함성이 들린다. 사냥을 하나보다.  
아득한 옛날로부터 그들이 걸어나오고 있다.(리)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단풍이, 또 첫눈이  
늘 그렇게 새롭다.  
사람도, 박물관 사람들도...(衍)

매서운 겨울 바람,  
종종걸음으로 문을 들어서니  
정, 리, 연, 진, 하의  
따스한 미소가  
나의 언 몸을 녹여줍니다.(愛)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  
裸木 한 그루  
눈을 찌를 듯 예리하다.(河)

보고 또 보고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水)

겨울은 다시 처음과 만나는 때  
그래서 아득히 먼데 것들과  
작고 여린 것들이 더 생각나는 때...(진)

말 속에 정령이 산다 했던가.  
한 해의 끝에 서니  
아쉬움으로 기다림으로 한줄기 바람으로  
어느새, 내 앞에 와있다.(정)

##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12호

발행일 | 2005년 12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정혜리 조미연 조애경 진수옥 허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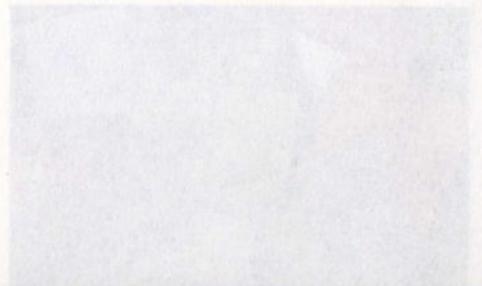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한국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지도, 조선시대 지도

조선시대 지도

조선시대 지도, 조선시대 지도



#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 표지그림 이야기

압록강 국경지도 (鴨綠江邊界圖) : 조선초기에는 북방의 영토인 四郡 과 六鎮을 개척하면서 이지역의 군사지도를 많이 제작하였고,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의 양대 전란을 겪은 뒤에는 국방의 강화를 위해 군사지도를 많이 제작하였다. 청나라와 접경지대인 압록강 일대를 상세하게 그린 《靑北邊城圖》와 《鴨綠江邊界圖》등이 대표적이다.

寧海府圖  
太祖至欲據險保其城  
之祖嘗于二木至望以城西  
而北至東寧府南至鴨綠江  
為之一望

寧海府  
太宗皇帝御製  
寧海府圖

寧海府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